

금주일언 항상 근심하여 배우기
를 좋아하고 마음을 바르
게 하여 행하며 보배로운 슬기를 품었나니
이를 일컬어 도를 닦는다 한다
(법구경·봉지품 374절)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0561)770-2057

제 1219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7년(불기2541년) 3월 17일 (월요일)

등록금·복지 등 문제삼아 총장실 점거 시도

총학생회 - "의견 관철할 것"

학교당국 - "그릇된 방법 용납 못해"... 난항예고
직원노조

지난 13일 제2대 총학생회(회장=구장주·아간경영4)의 회원자주화 투쟁선포식이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선포식은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13대 대학원총학생회장의 연대 발언도 있었다.

투쟁선포식은 우선 △등록금 등결 △교과과정 정상화 △학부제대안바뀐 △캠퍼스 이전계획안 공개할 것 △88년 학자부 합의문을 즉각 이행 △일방적 학사행정 전면중단 △학생자치활동 보장 △기타복지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장학금·실용실습비·예결산공개와 이번학기부터 시행한 PC를 이용한 수강신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대한 학교당국의 책임, 교수채용의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88년에 합의된 예산공개 및 기속사건립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생활 건설에 대해 투자할 것과 식당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안 등을 발표하는 순간에 학교 주변에는 전투경찰이 배치되어 전경들이 배치되었으며 이는 더욱더 학생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경배치에 대하여 학생측과 학교측의 입장은 상이했다. 학생측은 총장실 점거와 관련해 학교측에서 요청한 것이라 학내선전을 했으며 학교측은 투쟁선포식과 관련하여 거리로 나갈것에 대한 전경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총



◇ 지난 13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회원자주화 투쟁선포식이 진행되었다

장실 점거를 감행했다. 본관에는 이를 막기위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총장실로 향하던 학생들과 심한 몸싸움과 욕설들이 난무했다. 지지하려는 직원과 학생들의 모습은 집회장소에서의 전경과 시위대들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총장실로 돌입하려는 학생들, 원감하게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 끝까지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희조정실 문을 부수고 학생처장실의 창문을 깨는 학생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학교와

학생들은 서로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김정대 직원노조 부위원장인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학생·직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으며 학교측은 기획실 등의 직기를 보수 해야만 했다.

총장실 점거를 여러번 시도했지만 성사하지 못한채 학생들은 오후4시가 지나서야 해산했다. 이번 사태는 총장실점거 자지에 흥분한 학생들의 잘못도 있지만 사전에 대화를 시도하며 여러차례 보낸 학생회의 공문에 답하지 않거나 형식적으

로 응했던 학교측의 태도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학교당국과 학생회간의 관계를 경색시키고, 신입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을 뿐이다.

한편 이번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 직원노조(위원장=김정욱)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직원노조는 이번사태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들을 천명했다. △학생들의 행진실 점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 더 이상 노동자

서의 권리 침탈당하지는 않았다 △우리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학생들이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착안이다 △사태해결을 위해 학교당국의 성실한 태도와 학생들의 반법적 이성을 촉구한다 등이며, 총학생회와 지속되어 왔던 동반자적 협조 관계가 이번사태로 인해 소원해 지지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한편 총학생회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학교측의 강경한 대응에 일단은 물러났지만 오는 19일에 열릴 공개 대화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19일도 학교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실력행사로 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학생회의 요구는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식당이용과 생활건실 등을 살펴볼 때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회의 요구관철을 위한 방법론은 결코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행동에 일말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교 당국 또한 무죄일 수 없는 것이다. 흔히 학내의 구성은 3주체라고 한다. 교수·직원·학생들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번 사태를 볼 때 학교측과 학생회측이 조금씩 양보를 통해 더 이상 점거가 아닌 대화로 풀어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대학종합 평가 우수 판정

기본시설확보·교육과정개선 등 고득점

본교가 지난해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윤형섭 이하 대교협)에서 실시한 대학종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본교를 포함해 이주대, 숭실대등 11개 대학에 대한 평가에서 인정기준치 3백50점을 모두 넘었다고 지난 11일 대교협이 공개했다. 또한 대학원에대한 종합평가 결과도 기준치 70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경의실 등 기본시설 확보와 교육과정 개선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에서는 우수하지만 교수 1인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도서관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오는 7월에 대학종합 평가를 받게될 예정이다.

2차 등록률 79.2%

경리과(과장=박환오)는 지난 12일까지의 등록률을 79.2%라고 밝혔다. 경리과측은 "학생들이 제때 등록금을 납입했지만 학사행정이 무리없이 진행될수 있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수납 기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수업일수의 3

분의 1일 되는 4월 9일까지는 수업이 가능하다.

교수동정

▲연기명(법학) = 지난 3월 8일 한국교수 불차 연합회 정기총회 사무총장파선.

본사사령
◇임기자
▲오인택 (사회과학대 신문방송 2)
▲최진 (생명자원 과대학 생명자원 경제 2) (이상 3월 17일자)

제 2차 임금 및 단체협약 임금인상안 5%선에서 논의

제2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14일 교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섭은 1차 교섭시 노조측에서 제시한 단체 협약 7개안과 임금협정 3개안에 대한 학교측 입장 설명선에서 치러졌다.

우선 노조측이 제시한 임금협정의 방향과 인상요구안에 대해 학교측은 "97년 등록금과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5%이내의 논의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규 직원 채용 및 운영안에 대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한 후

차후에 논의하자"고 말했으며, 행정개혁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노조의 자문위원의 구성안"을 제의했다.

또한 가능한 근무자의 노무 환경개선에 대하여는 "공간 정결을 위한 환경 개선을 수차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교측의 답변에 대해 노조측은 "특정학 이견은 3차 협상자리에서 상호 요구안에 대한 적절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수

불교에서는 장례식을 시다림(尸茶林)이라고 하며, 화장을 다비(茶毘)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마갈라국 왕사상에 계시 때, 성의 북쪽에 있는 숲의 이름이 바로 시다림이었다. 여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시신을 묻거나 장례를 치르는 곳이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땅자의 명복을 비는 독경이나 법회, 장례의식을 시다림이라고 한다. 또 다비란 시신을 화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고대 인도에서는 최상의 장례법이었다. 불교에서는 반드시 화장만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화장을 권유하고 있다.

다비(茶毘)

이러한 화장의식에 대하여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교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피해 왔으며, 동양에서는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화장을 멀리하여 왔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세상을 하직한 등소평의 장례를 이례적으로 화장의식으로 치루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등소평을 막론하고 무덤의 크기와 장식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왔다. 즉 생전에 무언가 가까운 권력을 지닌 자 일수록 자신의 무덤이나 시신을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하였다. 진시황의 무덤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근래의 모택동이나 김일성도 시신을 장기간 보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몇십년동안 거대한 중국을 마음대로 호령하던 등소평은 혁명유공자 묘역에 묻히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뒤 시신을 화장하여 바다에 뿌려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으며, 중국당국은 이를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는 고승들이 "내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 다비하여 산천에 뿌릴 것이며, 사리도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입증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중국에서도 묘지난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시책으로 화장을 권유하고 있지만, 민중에 깊숙히 뿌리 박힌 매장관습으로 그 시행에는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화장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호응은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층 가운데 등소평처럼 다비를 앞장서 실천수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한보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 취재·사진기자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3월26일(수)오후5시까지
-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200자원고지 20매내외로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② 면 접
- △면접일시 및 장소 : 서울-3월26일(수)오후6시
경주-3월27일(목)오후6시
서울·경주캠퍼스 본사 회의실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서울-260-3492
경주-770-2057

동대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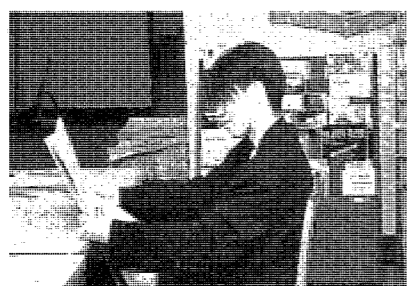
수습기자 모집광고

1. 동대신문 기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 매월 소정의 급료가 지급됩니다.
 - 대학기 장학금이 지급됩니다.(1·2학년 수업료 반액, 3학년 수업료 전액, 임기만료 퇴임 후 4학년 수업료 전액)
 -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정기세미나에 참석합니다.
 - 3학년 여름방학에는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 학내외의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됨으로써 작·간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글쓰기와 글쓰기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청년학생의 자질과 의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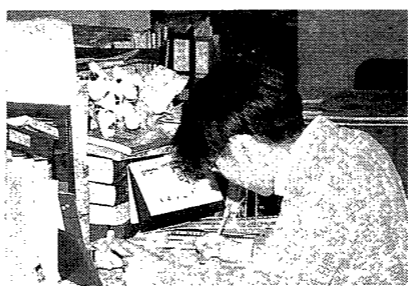
2. 동대신문 기자는 이런 어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 개인적인 시간을 보강받기 어렵습니다.
 - 본인의 열의가 없을 경우 우수한 학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 신문사의 운영방침과 목적을 준수하고 위계를 따라야 합니다.
 - 파종한 업무를 감내해야 합니다.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시각형성과 분석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3. 무엇보다도 동대신문사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을 기다리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 편집회의. 전 기자들이 모여 한 주의 정세 및 시·사회를 논의하고 회의를 통해 다음 신문의 이이템을 선정합니다.

☞ 취재: 기자 각자의 고유영역인 학내 출입문을 방문하거나,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취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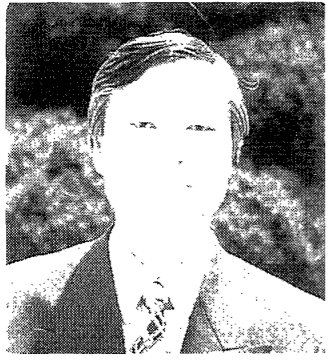
☞ 기사작성 및 편집: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며 신문면에 효율적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편집합니다.

☞ 제 판: 작성된 기사를 편집에 따라 직접 지면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비로소 신문제작이 완료됩니다.



동대신문사

노동조합·쟁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부당



연기영
법대 교수

시사논단

무노동 무임금 제도 - 무엇이 문제인가

라 지분을 위한 법이 된 것이다.

특히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날치기법에서는 '사용자의 정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임금지급요구의 정의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노동조합의 발원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행위를 금지하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노동조합의 발원을 확고히 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노동법의 분리 처리로 지난해 12월 28일 날치기 통과된 안기법 등의 재개정이 어려워진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이번에 재개정된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는 앞으로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정의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정의행위를 금지시키는 데에서 한 걸음 나가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임금으로 먹고사는 노동자들이 파업자세를 기피할 수밖에 없도록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5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운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법에 명시하여 노동조합운동을 방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별 사업장단위의 조합원 대표들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우리의 개정 약법에서 노조전임자급여를 위해 '노사기금조성'이라는 선연적인 보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 많다.

원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무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근로계약상의 법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지각, 결근, 조퇴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노동쟁의로 인한 노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노동탄압수단의 제도로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개별적인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과 과업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인가? 이에 대해 노동법 학계에서는 몇가지 이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노동법이 단체법적 성격을 가진 노동보호법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해답은 간단하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쟁의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파업중의 임금문제는 단순히 계약관계로 처리되어야 할 질병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노무제공을 못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종속노동관계에서 생기는 불균형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약한 힘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동법이 생성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실질적인 힘을 가진 자본과 권력에 맞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다. 특히 정당한 정의행위에 있어서는 평상적인 노사관계는 정지되고, 노무제공의 불이행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에게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의 입법추세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형사처벌과 함께 법제화 한 것은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이규정의 해석·적용을 당분간 선연적·주요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화합과 단결로 평화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이끌어 내고 평등복지정토사회의 구현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노사지치'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 노동법 적용의 일반 원인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이 노동법규에 우선할 수 있다.

둘째, 하루속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의 기한 조정을 위해 노·사·정이 기금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노동관계법에 이러한 조항이 있으나 선연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합법적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강구해야 한다.

셋째, 국제노동기준과 정당성을 가진 노동법 개정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노동계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입법과 노동인권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임을 강조한다.

사설

존중과 신뢰의 자세가 필요하다

개강을 한지도 어느덧 3주가 지났다. 익숙치는 않지만 강의실을 찾아 여가져기 돌아 다니는 신입생들의 밝은 모습이 동양 곳곳을 환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에서 실시한 대학총학생회에서도 보고는 기존집시 이상을 받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우려했던대로 등록금 문제는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더 깊어만 가 보려는 마음은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13일 도서관 앞에서 개최된 학원자주화 투쟁선포식에는 연대사태이 후 처음으로 많은 학생이 모였다. 단순히 등록금 인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원자주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학내 주체로서의 참여권을 요구해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마지막 실천행사로 실시했던 분관 항의방문은 방문의 차원을 넘어서 절거를 기도했고 학생과 직원간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유리창과 문이 파손되고 직원노조 부위원장에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미술학과 학생이 기절을 하는 등 본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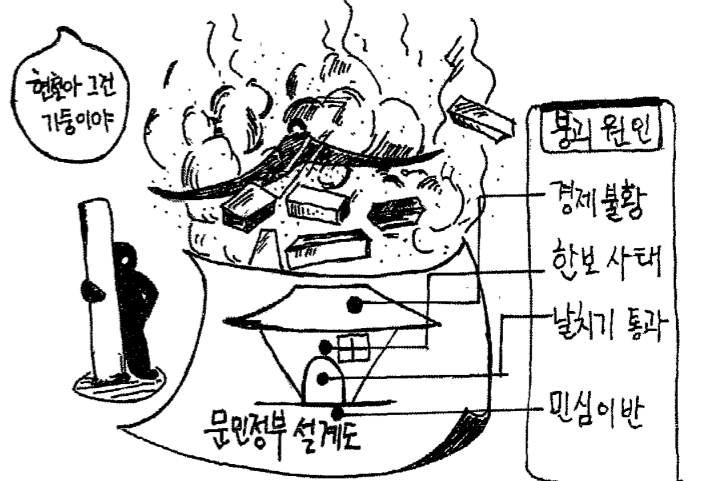
결국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며 서로간에 깊은 불신만 남게 됐다. 더욱이 집회에 참여한 학생의 대부분이 신입생이었으며 그들이 대학에 와서 처음 참가한 집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선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배우는 학생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사제간의 예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둘이 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또한 대학행정의 주체인 직원들에게까지 함부로운하는 모습을 보여 직원들의 분노를 샀다. 이번일과 관련해 직원노조에서는 '노동권과 행정권은 침탈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행정실 점거기도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전에도 학생들이 학원자주화에 대한 요구실현을 위해 절거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화나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보였으며, 절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다. 절거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극한 경우에만 불가피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공감을 얻어 대중적으로 풀려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 일이 계속 누적되어오면서 이제는 대화나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일단 절거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역지논리가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런 극한 행동에까지 가서야 비로소 협상에 응해주는 학교당국의 태도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번사태는 학생회가 무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은 학교가 학생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학생은 학교를 정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다. 각 주체들은 무시와 불신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부터 익혀야 할 것이다.

중국만평

고대성



(조선인 기자)

◆심층

전교조 합법화 대안 마련 시급 교조·노동기본권 보장돼야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문민정부는 교육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처우개선없는 개혁강요는 문제를 낳기 시작했고 교육의 주체자인 교육자에게는 아무런 개혁을 남기지 못했다.

전교조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합법화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는 이미 89년 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불법단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건이후 여야는 노동법 재개정에 대한 합의의 달성에 마무리 했다. 노동법 개정의 논란인 복수노조와 해고정리제의 합의는 어느정도 해결점을 보였으나 전교조의 합법화는 미결로 남아 전교조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논란은 89년부터 시작됐다. 여소야대시절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안건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어 노동법 일부개정을 단행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지지해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관련조항은 '6급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도 가능하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않다(노동법개정안 8조 ①항)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교원단체권 보장을 의미했으나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요구와 주장은 여러면에서 확고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교원도 노동자라는 것

이다. 교원의 노동조합법 규정에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 임금 급료 기타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되며, 지배-종속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정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사회적 인식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아직 현사회에서 공감을 얻어 내지 못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불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나 서명운동활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다르다.

민주노총 전문위원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응답자의 70.7%가 찬성을 했으며 20.3%만이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 말고도 시대적 흐름으로 볼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제 노동기준에도 합치된다.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보장은 국제 노동기구협약과 유엔 인권헌장과 더불어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유네스코 등 공동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안'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노동기본권 보장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케냐 뿐이다. 그러나 케냐는 초·중·고 노

조결성권이 보장되어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이 케냐의 노동법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동기본권 보장 급기가 높은 방향일까?

정부는 현재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보고있으면서도 그들이 주장한 내용의 대부분을 교육개혁으로 수용하는걸 보면 정부는 단체활동은 인정하지 않자만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 교육민주화의 정당성은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된다.

전교조의 합법화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 종교계 및 기타 민주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이나 전교조 위원들이 투쟁으로 한발 앞기를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여론수렴이 아니라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역제는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다. 전교조의 가혹한 탄압이던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위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경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예전처럼 잘 나가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경제의 동맥이 되는 에너지·화학산업과 우리나라의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분야는 뜨겁습니다. 에너지·화학분야의 대표기업 유공과 우리나라 무선통신기술의 개척자 한국이동통신-에너지와 정보통신의 No.1 기업이 바로 선경안에 있습니다. 이 No.1 선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자원이 젊은 인재들.

잘 나가는 분이려면, 또 잘 나가고 싶은 분이려면 사람을 키우는 선경으로 오십시오. 미래가 더 밝은 기업, 선경. 그래서 요즘 장래가 촉망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찬사를 선경도 자주 듣습니다. "잘~ 나가네!"

사람이 자원이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경

• 선경채용상담실 02)728-0222, 0212 서울특별시 용지로 27가 36-1 선경빌딩 1층
• Internet 채용 Homepage http://www.sk.co.kr/sun-k1.htm



SUNKYONG
선경그룹

무관심으로 야학이 사라져간다 편견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되살려야

야학이란

야학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진을 살펴보면 밤에 공부함, 야간에 학습을 이수하는 과정, 또는 그 교육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밤에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 중 밤에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가? 여러 학원을 거쳐 밤 늦게 집에 도착해서 또 고액과외를 받는 것을 아무도 야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96년도 한국 교육지표'에 따르면 전문대, 교육대,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 위학율이 해마다 늘어 70년에는 8.8%, 80년 16%, 90년 38.1%에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고 한다. 10명의 재학생 중 6명이 고등교육을 받는 이 시점에서 소설 '상록수'에서 묘사되었던 야학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는 없다. 한글을 깨치지 못해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가가겨겨'를 따라 읽는 이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야학의 역사

우리나라 야학은 1907년 마산 노동야학을 효시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민족자존을 일깨우기 위해 애국인사와 청년들이 주도한 '계몽야학'으로 시작되어 일제 탄압기에는 지하로 들어가 민족정신의 전파통로가 되기도 했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한때 끊어진 야학의 맥은 50년대 말 농촌과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60년대에는 검정고시 교육을 담당하는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다.

70년대에는 실생활 및 교양에 중점을 둔 생활야학과 노동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노동야학이 큰 영역을 차지했으며 유신정권이후 학원에서 추방당한 운동권 학생들이 대거 야학으로 뛰어들어 노동야학을 더했다. 80년대에 이르러 계몽목적의 야학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야학은 곧 노동운동'이라는 시각이 팽배해졌다. 그러나 83년 야학의 대학생 교사들이 경찰에 대거 연행되는 이른바 '야학연합화사건'을 계기로 노동야학은 큰 타격을 받아 점조직 형태의 지하야학까지 등장했다. 노동야학의 쇠퇴기에는 80년대 후반에 들어 뚜렷한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노동자들의 교육욕구가 다양해졌는데, 야학이 아니라도 노동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기 때문. 90년대는 야학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 야학간의 통합도 시도되고 있고, 현재는 검정고시 야학이 절대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야학과 노동야학은 검정고시 야학의 한 프로그램으로 흡수됐다.

문을 닫은 야학

그러나 요즘 야학은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있던 후원도 점점 줄어들고 특히 가르치는 교사가 없는 것이 큰 이유가 된다. 여러군데 광고를 내지만 요즘 야학교사를 하려는 대학생은 '가물에 콩나듯' 하다. 그에 따라 학생수도 감소해 지난 한해만해도 서울시 내 10개의 야학이 문을 닫았다.

따라서 야학들도 나름대로 이를 극복하기



◇ 사진은 야학 수업의 한 장면

위해 2, 3개 야학이 통합해 색다른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로 서울 한겨레 야학과 청송야학은 '새날을 여는 사회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살림을 합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또 태정야학은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지장했던 강과과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하는 대학식 수강신청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학은 이러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관심속에서 점점 설자리가 잃어가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부가 청소년 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지역 32개 전국적으로 1백58개가 전부이다.

야학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냉대가 조속히 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 야학은 소설 '상록수'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취재부)

◇ 사단법인 소년학교를 찾아...

ELF와 24년 인연 다정한 개학파티 따뜻함 풍겨

지난 13일 오후 6시경 야학 선생님 두분과 함께 '소년학교'에 가기 위해 131-1번 버스를 탔다. 명동을 지나 한남을 지나 청바를 보니 이미 하늘은 가로등 불빛으로 짙어지고 출발한지 1시간이 지난 시각. 버스는 난지도 종점에 다다랐다. 요즘도 더 내지않은채 차를 갈아타고 10여분 더 가서 버스는 땀한 시골길 같은 곳에 우리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간다.

"여기서부터는 누구든 선생님이란 칭호를 써주세요" 비록 정식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예우를 지켜주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게하는 위치에서 선생님이란 호칭을 사용한다고 기자에게도 설명해 주는 꼼꼼함은 정말 선생님답다.

'사단법인 소년학교'라는 명패를 보고 비탈길을 올라가면 불빛이 환한 두채의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다가와 인사를 하고 이야길 나눈다. 소년학교는 고아들을 돌보는 곳으로 총 60여명의 초중고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4년전 봉사동아리 ELF는 이곳 소년학교와 인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교류를 갖고 야학을 실시해 지난 해 8월에는 서울시장의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총60여명 중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야학을 운영하며 매주 10여명의 선생님이 학습을 지도한다. 단순한 공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고아'라는 핸디캡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들을 감싸주고 인성을 지도해주는 것 또한 그들의 중요한 할 일이다.

마침 기자가 방문한 그 날은 개학파티날이었다. 석달여간의 방문에도 아이들은 낯설음을 모른다. "처음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않아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얘기를 많이 하니 나중엔 자연스레 교감하기도 하고 친밀함도 느끼고 정이 들어버렸죠"라고 선생님들은 말한다. "이런데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네!" 아이들도 제각각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렇게 표현해 보고 속스러워하곤 한다. 일정한 불없이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인사를 듣기도 하고 장난을 치며 과자를 먹여주기도 하는 개학파티.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 자연스러운은 선생과 제자가 바뀌어대를 이어온 24년간의 시간의 향기가 우려나 듯했다.

1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선생님은 함께 청소를 하고 책상을 정돈한다. 아이들이 제 방으로 돌아가며 "화요일날 봐요"라고 의지하는 인사를 뒤로하고 선생님들은 둘러앉아 교무회의를 한다. "아이들과 많이 친해져서 이젠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학생에 대해서나 앞으로의 행사에 대해서 혹은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교무회의 시간에 논의한다고 한다. 깨끗이 잔치를 해가며 서로의 의견을 묻는 시간은 흡사 어느 중학교의 교무회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소년학교를 관리하는 어머니들 인사말을 드리러 간다.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는 친자식에게 말하는 정다움이 배어있었다. 비탈길을 내려오며 선생님들은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고 뒷풀이 장소로 향한다. 어느 교수의 수업이야기, 학생의 농담이야기, 집에서 일어난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존재는 사라지고 친근한 동기의 자리로 돌아간다. 9시가 다되어 도착한 어느 낯은 짜장면집, 무슨 '목'이니 무슨 '성'이니 하는 거창한 이름이 아닌 단지 '짜장면 집'으로 통하는 곳이다. 기분 좋을 땀 소주 한 잔을 걸치고 마지막 행사로 노래를 부른다.

"호수같은 그대 마음에 종이배를 띄워주세요 호수 위에 햇빛 비치면 내 사랑을 전해 주리오. 사랑의 물결이 그대 마음에 퍼지면 내 마음은 종이배 그대 향해 퍼우리. 사랑하는 내님 그대여 내 할 곳은 그대 편이요. 사랑하는 내님 그대여 내 사랑은 전하 주리오"

집으로 향하는 밤하늘엔 제법 별이 초롱하다. "작은 봉사일 뿐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소박하다. 새내기를 많이 맞아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그들의 97년 소망은 뒷풀이 때 손을 잡고 부르는 노래가 결코 연민인의 사랑이 아닌 동기간의 사제간의 선후배간의 사랑임을 알게 해준다.

(최진 기자)

인터뷰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해와 노력으로 내리사랑 베풀어

야학교사 임중식(계교2)군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진기자가 들이대는 사진기에 이내 민망한 표정을 짓는 그가 소년학교의 야학선생님 임중식(계교2)군이다.

ELF라는 순수봉사동아리 회장을 맡고있는 그는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야학을 위해 일주일에 두번씩 소년학교라는 고아원을 찾는다. "야학이라기 보다는 그냥... 공부보다도 처지를 비관하거나 빛나가지 않게 아이들과 대화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정도지요."

131-1번 버스를 타고 소년학교에 도착하기까지 부려 1시간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 몸도 지쳐가며 소년학교를 1년 넘게 방문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릴 땐 학교 생활이 지치고 짜증나서 가기 싫은 적도 있었어요. 그럴땐 그냥 애들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만 먹고 소년학교에 가는데 아이들이고 수업을 하고나면 마음이 풀려요. 분박을 나설땐 다른 얼굴이 되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대하듯이 아이들도 마음만 열면 선생님을 잘 따른다고 그는 말한다.

"집단건 주로 아이들과의 마찰인데, 저희는 사소한 말일지라도 잘 골라가며 싸이거든요. 쉽게 상처받은 아이는 마음을 열지 않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늘 배려하고 아이들도 절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런 것들은 잊혀지고 말아요."

그는 학교수업을 마친뒤 화·목요일 저녁 시간의 대부분을 이 야학에서 보낸다.

학생들에게 열의를 갖게된 동기를 묻자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로 답한다. "선배님의 권유였어요. 입학했는데 한 선배님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다정하게 이겼저겼 챙겨주는 그 선배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겼는데 그 외중에 선배님에게 동아리방에 가보지 않겠다는 권유를 받았어요. 한번 가보고 분위기가 좋아 입학원서를 썼는데... 그냥 로그거죠 뭐." (최진 기자)

누구나 야학교사란 자리를 봉사중에 힘들고 고된 자리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의 고 정관념에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저희는 검정고시를 목표로 공부하는 주경야학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핸디캡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공부만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저희가 야학은 그 아이들보다 함께 나눌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것뿐이에요. 저희가 잘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야학이란 나누는 봉사의 자리 그것 이상의 커다란 희망은 아닌 것 같았다. 지금의 소원이 어떤 새내기를 많이 맞아 소년학교 학생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감히 말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최진 기자)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 금 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문화단신

영화이야기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신에 김용수 감독의 제12회 독립영화, 80년대 최초의 운동권 후임업 영화인 동시에 자유와 정의를 위해 젊음을 투신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아파하는 20대들의 이야기... **다들 수작, 프리보그, 예테 보리, 불타는 영화제** 등 국제영화제 초청, 오는 22일 코아이트 홀 개봉 예정.



음악이야기

노래를 콘서트 '희망'을 위하여... 라이브만을 고집하며 10여 년 동안 포크음악을 지켜온 노래가수, 노래가수 4집 음반을 준비하며 신곡 발표 예정.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신촌 라이브 극장 '희망' 공연. 초대손님으로는 양희은, 신형원, 정경화, 안치환 등 다수. 문의(333-8467)

언어이야기

하비쿠사(피폭자) 김영주... 세계 제2회 환경의 날 초청공연 예정. 북한 핵 폐기를 반박하고 유관한 환경영국, 왼쪽의 오염을 소재로한 본 연극은 극단 배우 극장의 창간 30주년 기념극. 연출·주연에는 홍유진, 오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두레박 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761-1275)

들꽃피는 도시... 극단 현장의 22회 정기공연으로 현대 사회를 풍자한 마당극. 판소리, 민요, 트로트, 록, 풍물 등 여러 음악양식을 의미있게 해석. 노동연극을 처음으로 문예회관에 입성시킨 박인배 연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 문의(923-7320)

'97 문화유산의 해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배우자'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 되어야

문화체육부는 97년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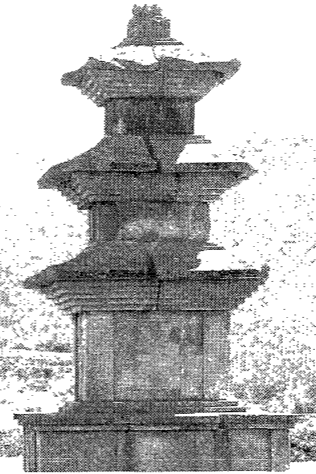
점점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바로 알아 보존·계승하고, 현재의 문화발전 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이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남긴 수 많은 문화유산 중 98년에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에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관,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현재의 우리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서구문화가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국적불명의 문화가 되어 버렸고 전통문화는 소외되고 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배우자'는 정신은 어디로 사라져 간 것일까?

이렇게 우리의 전통문화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원인 중에 학교 교육이 한 몫을 한다.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영어와 컴퓨터 등의 과목에 치중하는 반면, 우리 전통문화에는 소홀히 하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문화유산 관리능력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할 의의이다.



또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민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라는 표어에 맞게 문화유산 알기·찾기·가꾸기 사업과 기념우표 발행, 기념창작 및 국악공연 등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민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라는 표어에 맞게 문화유산 알기·찾기·가꾸기 사업과 기념우표 발행, 기념창작 및 국악공연 등을 기획하고 있다.

독립영화의 현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투명인간의 사랑'

독립영화에 대한 성격 규정 필요

독립영화는 불투명하다. 단 한명의 감독도 그의 정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어떤 누구도 그의 위치를 자의선 안경을 착용하고 신중히 찾아 대문앞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수고를 하려하지 않았다. 왜일까? 그곳엔 갈라가는 보석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공동체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엔 아직 시점과 분침이 그리는 도형의 끝이 너무 뾰족한가?

그러나 한편에서는 동그라미가 그려진 대문이 즐비하다. 동그라미가 독립영화라는 것인지 독립영화가 동그라미라는 것인지... 하여간 저마다 동그라미 보전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한국의 독립영화들 몇 개의 단어로 정의내리는 우둔한 짓을 내기할 수 없다. 약간의 단서만을 남기고 사라져야지.

*'참여'와 '발언'이 두 개의 단어가

독립영화의 정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넘겨진 최초의 단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어디에도 참여와 발언이 있었는가? 발언인가? 발언이 아니라 하는가? 언제나 물음표를 위한 나쁜 주제와 변주들...

독립영화를 만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한다'고 했다. 그들은 독립영화를 한다. 독립영화는 한다. 독립영화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도 그걸 잊고 싶어한다.

독립영화라는 것을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이 언더버터 불려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한한 글씨... 그것에 예시 장 비디오가 포함된다면 꽤나 많은 사람이 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한한 글씨... 그것이 정신이란 것 지켜야 한다면 이번엔 이리송... 독립영화는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진다. 독립영화협회에서는 독립영화 정기발표회란 이름의 상영회를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때마다 새로운 영화들이 상영된다. 그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비디오도 있고 필름도 있고 장편도 있고 단편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실험영화도 있다. 그리고 하나더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새로운 경향이 없다. 지류들만 있을 뿐 조류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신선한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독립영화가 수백만 명의 관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지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투명인간에게 색깔을 해야한다. 투명인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사람들과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편한 것이 가끔은 케이트를 벗어버리고 나쁜놈, 미운놈 뒤통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독립영화를 해야 한다. 흥내와 연설에만 몰두하지 말고, 나름의 모습과 방식으로...

장덕희 (독립영화 사무국)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 민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가꾸자'는 취지에서 '문화유산시리즈'를 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

1.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2. 손실된 문화재와 그 실태
3. 문화의 거리 인사동을 돌아보다.
4. 경주의 무형문화재를 찾아보며

(편집자)

우리나라의 문화재 현황을 알아보면 국보 2백33점, 보물 1천2백32점, 천연기념물 2백86호, 인간문화재 1백81명 등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유산의 해인 올해만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쏟아져서 인할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요즘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 '문화유산의 해'에 대한 내용이 한 부분을 장식한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기사적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월 21일 '97문화유산의 해 선언 포식' 이후로 약 2개월이 흘렀다. 이제 전 국민적인 차원으로 성황리에 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겠다.

(문화부)

달 하나 천 강에

한지소고



최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지란 전통적인 종이제조법에 의하여 만든 종이로서 그 원료는 단나무 혹은 삼지나무를 사용한다. 전통적인 종이제조법은 원료인 단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젓물로 삶고, 실처럼 풀어지면서 하얗게 된 섬유를 물질(풀고루 종이) 때 지도를 틀 위에서 흔들어 쉼)하고 말려서 만드는 방법으로서 그 원리는 오늘날의 종이제조원리와도 대동소이하다.

이 종이를 최초로 개발한 곳은 중국이지만 종이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에 전파시킨 것은 우리 민족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동쪽으로 일본에 제지술을 전한 것은 승려 담징(610년)이었고 서쪽으로 종이문화가 전해진 것은 고구려 유민 출신의 당의 장수 고신지에 의한 달라스 전투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열색지를 개발하였으며 종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인쇄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예로부터 우리나라 종이 짚은 것과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은 소문이었다. 중국명인 박물유람에 의하면 그림을 그릴 때 먹물 먹는 종이 고려지만큼 겸손한 것이 없다고 했으니 종이에 대한 청천치고는 극치라 하겠다.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이 고려지로 글을 쓰는 것을 상류사회의 멋으로 알았다. 주요한 무역품으로 종이 값이 싸지 않음도 물론이다.

문필용 뿐만 아니라 질기기로도 우리 종이 가 세계 제일이었다. 중국의 고지는 "고려지는 질겨서 만지라 하는데 누에고치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화기가 백설 같고 질기가 비단 같다"고 하였다. 얼마나 질졌으면 가죽과 비슷하다고 등피라 하였을까. 그래서 우리 종이는 건축재로서 문을 바르기도 하였다. 참호자라 불리는 종이는 오늘날의 문과는 종이는 종류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종이만이 가지는 독특한 장점이 있었다. 그것의 기능은 습도조절을 하는 것으로 날이 흐리면 습기를 머금었다가 건조하면 이를 내뿜어 항상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아파트에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라.

옛 선비들이 한어투는 마당에 토담집을 짓고 거기에 피서를 했을 바 문은 종이를 바르고 있었다 한다. 오늘날의 바이오세라믹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다.

한말 러시아의 조사보고서인 한국지에서는 "한국의 종이는 섬유를 빼어 만들므로 여차나 질긴지 노끈을 만들어 별의별 공작물 다 한다. 종이는 결이 있어 이 결을 찾지 않고서는 찢어지지 않는다." 이 질긴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종이를 다양한 용도로 개발한 나라도 없다. 우선이나 부채 정도는 약피고 종이상, 종이웃, 종이등잔, 종이요강까지 있었다면 서양사람들은 이를 보고 무엇이라 할까.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전통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절약과 재활용의 지혜이다. 길을 갈다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길에 떨어져 있으면 이를 주워서 문간 옆에 두었다가 불쏘시개로 썼던 우리의 선조들이 종이를 다시 사용했는가. 추위가 닥치면 선비들이 북에서 국경을 지키는 징검돌에게 입고난 책들을 모아 보내는 관제가 있었다. 이 책장들을 뜯어 지의를 만들어 입거나 그 종이의 섬유를 풀어서 옷으로 사용하거나, 신발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이토록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오늘날 재래로 이어지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

요즘 종이접기가 유행이라고 한다. 어릴 때 하면 종이접기가 머리가 좋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창의력이 길러진다고 하여 젊은 부모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 종이로 해보면 어떨까, 혹은 우리의 종이공예도 다시 되살릴 수 있겠나 얼마나 좋을지 한 번 생각해 보

오정수 생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DA COM

살아있는 온라인 동영상·음성 서비스 - 우리는 진짜 멀티미디어 천리안 97로 간다!

진짜는 언제나 하나 뿐! 채팅은 무한정 공개에 세계 최초의 정밀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기능까지 추가된 천리안 97가 진짜 멀티미디어.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 바로 어떤 거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진짜 멀티미디어 서비스, 천리안 97!

새로운 천리안 97의 놀라운 기능

- 세계 최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천리안에서 실제 방송된 KBS뉴스 생방송의 목소리로 검색한다
- 생생한 음성 서비스 - REAL AUDIO 기능으로 음성 E-mail, 음성광고 등 실감나는 통신을 즐긴다
-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 - TTS, 웹캠 기능, 국제전화기능, 화상직접 통화기능, 팩스 전송 기능 등 새롭게 제공되는 편리한 기능이 가득하다

천리안을 따라올 자 누구인가!

무료 채팅 서비스에 이은 온라인 동영상 기능까지 - 더욱 새로워진 천리안 97과 만나십시오!

세계 최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제 역시 뉴스를 천리안 97로 본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 요금제 '무제한 무료 채팅의 기적!' 10시간 가변형 월 9천원 30시간 가변형 월 1만원 (세월 무료)

다중 접속 서비스, 천리안 키보드, 원하는 정보를 미리 주문해서 받는다!

개강 축하 2대 이벤트

이벤트 1 SCUG 무료개설 - 10명만 못되면 동아리 방 하나가 공짜! 동아리, 학과, 동문모임 등 천리안 ID를 가진 대학생 10명만 모이면 가입비(5만원) 없이 독립된 모임방(SCUG)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97. 3. 4 - 3. 31
개설방법 : SCUG 신청서 (60 SCUG 참조)를 작성 및 전화 신청. (082-02)220-7063, 7067

이벤트 2 천리안 캠퍼스 설명회 -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각 대학내 천리안을 소개하고 가입 신청을 받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신청기간 : 97. 3. 17 - 3. 31(각 대학 동아리 모임기간에 운영) 기념품 : 천리안 마우스패드 증정

천리안내 대학 동호회 및 가입 지원점 안내

- 천리안내 대학 동호회 (60 명명 +)
창주대(CJU) / 영남대(CY) / 순천교대(CNUR) / 순천향대(SUCA) / 새한대(SUN) / 울산대(USU) / 연세대(YONSEI) / 창원대(CWNU) / 한양대(HALLYM) / 연희대(INHA) / 국민대(KNU) / 울산대(MSN) / 세종대(SMU) / 건국대(OXGSDU) / 부산외국어대(PUPU) / 부산여대(PWTH) / 광주대(SJU)
- 각 대학 가입 지원점
서울대(문의 8866-002/경희대, 고려대, 중앙대, 숙대(동대문) 953-0055/이대(성동) 444-8688/한대(영동) 784-4248-4/송남대(강동) 473-0220/서울시립대(동경) 3471-6900/경대(노원) 952-8400/성대(종로) 273-9002/부산대(부산동대) 051502-9912-4/서원대(경북) 080-99-01420/동래대(부산동대) 051502-9912-4/동해대(부산서대) 051208-8706/동남대(대전충청) 042221-9733/서울신대(노원) 952-8400/서원대(경북) 413-0220/전남대(광주북부) 082501-2381/조천대(광주북부) 062521-2581/경동대(경북) 0391645-5001-5/강원대(춘천) 0361262-4364/상지대(영주) 0371732-3200

천리안 97사은대축제

축제 1 : 천리안 새나기를 위한 사은대축제
한국의 대표통신 천리안의 전용 S/W 천리안 97 탄생을 기념하여 고객 여러분을 위한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 대상 3명: 천리안 97사은대(1명) / 서울이동통신 사은대(1명) / 대전이동통신(1명) / 천리안 97사은대(1명) / 서울이동통신 사은대(1명) / 대전이동통신(1명) / 천리안 마우스패드 / 가입비 천리안 멤버십 키트 CD-ROM(저널) / 데스크톱(30명)
- *선물은 추첨을 통하여 드립니다

축제 2 : 천리안 97 사용자 및 아이디어 공모 행사

- 기간 3월 5일 - 4월 15일
- 대상내용 최우수상(1명) 상금 100만원 우수상(1명) 상금 50만원
- 佳作(1명) 상금 30만원 입선(10명) 참가 기념품
- 저작내용은 천리안 공개사용 및 행사 코디(CD-ROM)로 참조하시 바랍니다

* 천리안 멤버십 키트: 인터넷 50% 할인, 팩스 50% 할인, 30시간 가변형 요금제, 인터넷 50% 할인, 팩스 50% 할인

'동국참사람 인증' 제1기 교육생 모집 마감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지원학) 취업과는 97학년도 취업특화 교육을 위한 '동국참사람 인증' 제1기 교육생 모집을 지난 12일 마감했다.

97학년도 3학년 재학생으로 평점평균이 B 이상, 전공주요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98년도 하반기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남학생 28명, 여학생 34명 총 62명이 지원했다.

이달말경에 면접시험을 치루고 최종 50명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영어), 컴퓨터 교육으로 구성되며 인증은 자체 프로그램의 성과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이에 김학배 교수는 "취업률이 낮은 여학생 지원자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지원율이 저조하지만 '동국참사람 인증' 교육생은 기업체가 신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달말경에 면접시험을 치루고 최종 50명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영어), 컴퓨터 교육으로 구성되며 인증은 자체 프로그램의 성과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97 새내기 농구대회 개최

제29대 총학생회(회장=구정주,야간경영4)는 97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새내기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새내기들이 서로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내기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던 좋겠다며 취지를 학생회측은 밝혔다.

지난 12일 까지 28개팀이 접수하여 14일부터 경기를 가졌다. 예선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26일과 27일 준결승전이 공대앞 농구장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단대대의원장 선거공고

제 29대 총대의원회(의장=박병제·철4)는 지난 12일 지난해에 치루지 못한 단과대 대의원장 선거를 공고했다.

지난 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투표는 오는 18일에 있을 예정이다.

각 단과대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사과대=안중영(사회4) △사범대=권효진(수교4) △예술대=한연주(미술4)

교환교수 초빙

지난 8일과 12일 북경대의 위목승교수와 청화대의 숙지비 교수가 본교에 교환교수로 초빙됐다.

이들은 재대학원 학생교류협정에 의한 교수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본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

두 교수 모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초빙되는 것이며 위교수는 서울캠퍼스, 숙교수는 경주캠퍼스에서 각각 6개월과 1년동안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교류 협정에 따라 급여 외에 기숙사, 의료보험택 등도 받게 된다.

역경원 책 완간

'유기대교양경'의 3권

역경원(원장=김성규)은 지난 12일 '유기대교양경', '신화역경론', '미하반야비라밀경', '이비달미수정리론'을 번역·완간했다.

'유기대교양경'은 송나라 법현이 한역한 책으로 금강수보살의 물음에 답하여 '유기대교양경' 삼매안과라와 관상법·실수제지법을 실한 내용이며 당시 나라 이통현이 쓴 '신화역경론'은 신화경에 대한 논서이다.

그 외 '미하반야비라밀경'은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밝힌 책이며 '이비달미수정리론'은 당나라 현상이 번역한 것으로 구사론 학생을 반박한 논서이다.

수강신청 최종확인

오늘(17일)부터 양일간 실시

교무처(처장=박부권·교육학)은 9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인기간을 공고했다.

PC로 실시한 이번 수강신청으로 최종확인을 시행하지 않은 예정이었던 "처음 실시한 만큼 오류발생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기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실시기간은 오는 17일 18일 양일간이며 각 대학 교학과 및 학부(과)에서 실시한다.

이번 실시기간에는 개인별로 수강신청 최종확인인과 수강강좌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공대 보궐선거 실시

공과대는 제 19대 공과대 학생회 정.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등록기간은 오늘(17일)부터 19일까지이며 4학기이상 등록을 필 한자로 1백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투표는 오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치뤄질 예정이다.

오죽원 이사장 개강 대법회 예정

정각원(원장=이병신·선학)은 오는 18일 '오죽원 컨스님 개강 대법회'를 정각원 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죽원 이사장은 본 법회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교직원 및 신임, 일반 불교신자를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각원 한 관계자는 "불교종단대학인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신임생들에게 불교를 생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97새터 감사 실시

제 29대 총대의원회(의장=박병제·철4) 이하 총대는 지난달 15일부터 실시했던 새내기새터배우터의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7일=감사자료제출 △20일=감사 실시 △24일=감사보고서 자체평가서 작성 △26일=감사결과발표

감사와 관련해 총대측은 "차후 각 단과대 학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문과 후문, 동국관에 보고서 형식의 대자보를 적어 학생들에게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이용시간 확대

과제도서실, 기존 5시에서 8시 30분까지 연장

중앙도서관(관장=임효일·독어독문학)은 지난 13일부터 자료실 이용시간을 저녁까지 늘려 운영한다.

종전에는 각 자료실들을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고 토요일은 휴무였지만 바뀐 이용시간을 보면 △과제도서실=9시부터 저녁 8시30분 △불교학자료실 및 일반대출실=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열람실 및 정기간행물실=9시부터 저녁 오후 7시까지 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층 자료실의 도서대출도 지난 학기까지는 점심시간에 대출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도서대출을 할 수 있다.

생활생리대 자판기 설치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는 이번주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다.

생리대 자판기는 음료 계약을 한 두산과 롯데가 각각 2대씩 기증하는 것으로 도서관과 계산관, 명진관, 동국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학과소식

신문방송학과

지난 14일 제 2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선거에서 박선영(신방 3)군이 당선됐다.

학·전·무·대

고등학교?

0... 3월 13일 모화과 1학년 강의시간.

담당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 학생들의 수업준비와 과제를 검사하던 중 수업준비가 좋지 않자 한 학생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이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해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수의 권위는 어디까지인지... 이에 사건장소에 있던 한 학생은 "문득 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생각나더군요!"

보물찾기

0... 개강 2주. 학내에선 보물 찾기가...

다름아니라 개강 첫 주에 사정이 있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강의실을 찾지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시간표에 적혀 있는대로 가지만 강의실은 다른 과목 수업중. 주위를 둘러봐도 강의실 변경 지보는 어디에도 없는데...

첫수업을 빠진 학생 잘못인지, 아니면 그 누구의 잘못인지... 이에 그 학생 한마디 "대학에서도 국민학교 소꿉때 처럼 보물찾기 하나요?"

떠돌이

0... 아시아지역 학부생들은 갈 곳이 없다!

개강한지 2주가 지나지만 이번엔 신설된 아시아지역 학부생들은 학생회실이 없어 학교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다고, 심지어 같은 학부 동기들의 얼굴도 알 수 없다는데.

학교측과 학생회측 간에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아시아지역 학부생들의 자치공간은 언제 생길지 모른다고.

이에 학부대표 한마디 "같은 등록금 내고 왜 우린 떠돌이 되어 없을까?"

하든카드

0... 08이 드디어 카드를 내놓았다.

13일 오후 신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이회창 교문이 대표로 선출. 김현철 총재, 민심수 총재, 날치기 문제... 앞으로 신한국당의 움직임이 주목된다는데.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시국에 과연 이회창은 잘 해낼 수 있을지... 이에 한 시민 한마디 "잘~하면 대권주자, 못하면 총알 비이!"

'필승 다짐' 대법회 개최

올해 체육부 활약 기대

체육실(실장=박동기)은 지난 14일 금강관 트레이닝실에서 '97 필승 다짐 대법회'를 정각원 주관으로 개최했다.

총장의 체육지도위원과 체육선수들이 참석한 본 행사는 △삼강의례 △반야삼경 봉독 △이법산 정각원 원장의 필승 다짐 발언과 담어 △총장격려사 △선수대표의 필승 다짐 서원 △사총서원 등의 식순으로 치루졌다.

이에 체육부 관계자는 "작년 야구부의 춘계리그 우승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기원하고 선수를 나들대로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달말경에 면접시험을 치루고 최종 50명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영어), 컴퓨터 교육으로 구성되며 인증은 자체 프로그램의 성과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졸준위, 설문조사 실시

졸업사업 계획에 의견수렴할터

제9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산옥·경제4 이하 졸준위)는 98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1년 졸업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졸준위 위원장은 "졸업대상자들을 위해 좀더 나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 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설문 내용을 보면 크게 △취업 △적성검사 △신체검사 △창업설명회 △유학, 어학연수 설명회 △모의 면접 △졸업앨범 CD롬 △기념품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큰 항목별로 △취업=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어느 기업의 정보를 얻어보고 싶은가? △적성검사=적성검사를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라도 참가할 의향이 있는가? △신체검사=대부분의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전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때 탈락시키고 있다. 취업준비의 일환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창업 설명회=경기불황과 고공 불인정으로 현재 창업에 대한 불이 일고 있다. 학우는 창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등 세부 항목을 두고 있다.

제9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산옥·경제4 이하 졸준위)는 98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1년 졸업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졸준위 위원장은 "졸업대상자들을 위해 좀더 나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 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체육부 각종 대회 출전

19일부터 축구부 경기 시작으로

본교 축구부, 농구부는 각각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와 MBC에 대학생농구연맹전에 출전한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조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루지는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본교는 19일 육사구장에서 송실대와 21일은 효창구장에서 방송통신대와 경기를 가진다.

MBC에 대학농구연맹전에서 본교는 21일 단과대와 학생체육관에서 경기를 갖게 된다.

한편, 야구부는 다음달 4일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학야구춘계리그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 힘 겨루기... 지난 13일 총장실 정거에 대비한 직원들과 학생들의 한판 힘 겨루기가 있었다. 사진은 지난 13일의 총장실 앞 모습. (이태훈 기자)

97 봄특강 시간표

- 기간 : 3월31일~5월16일 (7:30~8:50)
- 회차는 별도시간표
- 접수 : 3월24일~4월9일
- 현불 : 3월24일~4월9일
- 접수 : 교내 서점(다량관 지하)
- 회차는 학복위사무실
- 문의 : 학생복지위원회(☎260-3681)
- E-MAIL : DGU1906@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구분	과목명	강의실	비고
TOEIC	거로 TOEIC WORKSHOP	K205	박하정 선생님
	다락원 IVY TOEIC	K207	김현준 선생님
	SYSTEM TOEIC	K308	진영준 선생님
TOEFL	아카데미 TOEFL	K307	김정민 선생님
	시사 신경향 TOEFL	K212	정처균 선생님
READING	고려원 영어순해	K309	이동진 선생님
회화	초급반 (Pre-intermediate)	K208	Native Speaker 7:00~7:50
	중급반 (Free talking)	K208	Native Speaker 8:00~8:50

봄특강 모니터·아르바이트생 모집

"특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도우미를 구합니다"

모니터생의 할 일

1. 강의 시간에 줄지 말고 매일 매일 모니터일지 작성하기
2.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 때려주기
3.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강의 후 교실 뒷 정리하기

모니터생의 혜택

1. 교재 무료
2. 수강료 무료

아르바이트생의 할 일

1. 강의 시간에 줄지 말고 매일 매일 아르바이트일지 작성하기
2. 강사와 연계, 강의의 원활한 진행 도와주기
3. 강의 준비물(마이크, 카세트) 준비하기
4. 강의 전/후 칠판 깨끗이 지우기
5. 모니터생과 함께 강의 후 교실 뒷정리2

아르바이트생의 혜택

1. 교재 무료
2. 수강료 무료
3. 소정의 도서상품권 지급

신청장소 다량관 지하 학생복지위원회 교육사업국

수강신청 최종확인

'9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인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수강신청 및 정정한 교과목의 학습번호, 강좌번호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수강신청 최종 확인서를 신속대학 교학과에 필히 제출하기 바람.

1. 기간 : '97.3.17(월)~18(화), 2일간
2. 장소 : 각 대학 교학과 및 학부(과)
3. 유의사항:

가. 개인별로 배부된 수강신청 최종확인서와 본인인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좌를 필히 확인하여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나. 복학, 추가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 등의 경우와 수강신청정정시 수강신청 및 정정한 과목과 최종확인서상의 상이한 과목에 한해 정정이 가능함.

교무처장

신규 직원 모집

1	모집부서	및	응모자격	인원	충요조건
인	행정 1	서울	약간명	약간명	· 학사위 이상 소지(비대면 제한 없음)
					·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 3.0 이상(5.0)
반	행정 2 (간주)	서울	약간명	약간명	·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 3.0 이상(5.0)
					· 1997.4.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 또는 면제
기	사서적	경주	약간명	약간명	· 학사위 이상 소지(비대면 제한 없음)
					·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 3.0 이상(5.0)
술	전산적	서울	약간명	약간명	· 학사위 이상 소지(비대면 제한 없음)
					·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 3.0 이상(5.0)

2. 전형방법 필기시험(영어, 논문)과 면접(시험 당일 실시)
3. 제출서류 가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각 1통 나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대학교) 1통 다. 불교도 신행증(본교 소정양식, 조계종 산하 사찰 신도증명) 1통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보유증명서(해당자) 각 1통
4. 접수기간 '97.3.18(화)까지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서울 캠퍼스 총무과(TEL. 02-260-3065~6) 경주 캠퍼스 총무과(TEL. 0561-770-2063~4)
6. 시험일시 및 장소 '97.3.22(토) 09:50 본교 서울 캠퍼스 교사장 * 경주군부 지원자도 서울 캠퍼스에서 필기 시험 및 면접 시험을 실시 함. ■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겸비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온몸에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동국대학교

